

월/요/광/장

하동만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위...

다 한발 앞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전체 경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세계경제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 금융이 선도적 역할해야

다 빠른 시일 내에 회생시키겠다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의 경기극복정책과는 다른 특단의 정책이 뒤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97~98년의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위기극복 의지와 과감한 개방정책, 그리고 신속한 공적자금 투입이 주효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농기 위해서는 혈액으로서의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외환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금융은 규모가 커지고 건전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도 공급불이 될 뿐이다. 먼저, 은행들은 과거와 다른 은행대출 잣대를 가지고 금리인하와 금융공급확대 정책의 취지에 맞추어 기업대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도 BIS비율 운용 등 건전성 감독에 신속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으로 1조원을 풀어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과 정부가 1조원을 가지고 은행대출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그 몇 배에 달하는 자금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 중, 어느 정책이 전체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철우



2007년 우리나라 357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는데 1천251억 원을 전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선진국 하수처리장과 비교해보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톤을 제거하는데 소모되는 전력이 우리나라가 2.07kWh로 미국 및 유럽연합의 1.5 kWh보다 1.4배 높고, 인구 1인당 전력 비용도 우리나라가 2천879원으로 미국의 1천793원, 유럽연합의 1천990원보다 1.4배~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만 들더라도 1986년 도쿄시는 오차하이 하수처리장에 히트펌프 시스템을 설치하여 회수된 폐열을 관리동의 냉난방 열원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20개 이상 하수처리장에서 상용화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늦은 감은 있으나 경북 울진군 하수처리장에서는 히트펌프 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열을 회수하여 냉난방에 이용하고 있고 제주시, 부산 수영구, 전남 순천시, 서울 중랑구 등

기고

남헌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가간 경쟁에 더하여 지역간 경쟁이 추가되고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세계 각국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 또한 5+2 광역경제권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정책적 수단이 경제 및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온 반면, 최근에는 문화와 스포츠도 지역 경쟁력을 높

의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 경제효과에 더하여, '광주'라는 무형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높아진 브랜드 가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광주는 세계적인 문화도시·관광업 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는 향후 광주 발전에 핵심역량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쉽지 않은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를 포함해 6개 도시가 신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장 건설을

쉽게 말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한 해 동안 하수처리비용으로 417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허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하수처리비용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것은 지금까지 하수처리정책이 하수도보급률과 하수처리효율을 높이는데 너무 치우쳐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 폐열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이용하는 데는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찾자는 이른바 '로컬에너지(Local Energy)'가 주목받고 있다. 스위스 제3의 도시 말페, 독일의 바이오 에너지마을 운데, 오스트리아의 머텍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지열, 태양열,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등 신 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충족하고 있고, 선진국 다른 도시에서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로컬 에너지개발을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하수처리장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대도시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찌꺼기 소화과정에 발생한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에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충남 아산시, 천안시, 제주시, 경남 진해시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낙차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 다행이기는 하나, 아직 에너지 회수 및 이용기술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공하수도시설별로 연간 1%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신 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고소비형 산업구조 개편,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그간 하수처리 과정에서 무심코 버려져 왔던 폐열 및 부생가스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하수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충당하는 '저 탄소 에너지 자립형 시설'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것이 녹색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글로벌 문화도시를 위한 새로운 도전

이는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구와 인천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실패를 딛고,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우리 광주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적 배경 등을 생 각하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는 다소 때늦은 감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에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세계여성포럼개최, 국제회의도시 지정, 2009년 세계광역스포츠, 2012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 등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다져왔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그 정점으로서, 광주는 이를 계기로 국제도시로서의 높은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개최에 따른 1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3만개

창하였고, 4월중 후보도시 현지실사를 거쳐 5월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지난해 보여준 시민들의 열정과 높아진 인지도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치 전망은 오히려 밝은 편이다. 다만 모든 경쟁도시를 물리치고 광주가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유치전략, 시민들의 열정과 애정전진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의지가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의지가 중요한 평가요소를 감안하면, 세계적인 문화도시·관광업 도시 도약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한 140만 시민의 간절한 기원과 소망, 그리고 끊임 없는 도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런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유치가 확정되었을 때 우리 모두 가슴이 뚫히듯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유치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더해진다면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는 광주의 몫이 될 것이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적드문 정류장 CCTV·비상벨 설치해야

경찰의 집요한 추격과 노력 덕분에 강호순 같은 천인공노할 범인이 잡혀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런 흉악한 범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자식 키우는 부모들 눈 불만하기만 하다. 이번이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CCTV였다. 그 위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증됐고, 작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CCTV에 찍힌 범인을 현장에서 잡은 일도 있었다. 하지만, 군포, 수원, 화성 등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부녀자 실종사건은 대부분 인적이 드문 정류장에서 여성 혼자 있다 번

을 당했다. 따라서 우리 광주·전남북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 구간은 안되더라도 인적이 드문 정류장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CCTV나 비상벨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는 전국의 지하철이나 정류장에서 승범의 사건이 많아 일명 세이프존(Safety Zone)을 구축하고 있다. 세이프존에는 CCTV나 경찰 연계 비상벨을 갖추고 있다. 우선 외딴 정류장 같은 곳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해 경찰이 통합 관리하는 세이프존을 방범제도가 있어야 한다. <김덕용·광주시 북구 오톨동

시설

수도권만 살리는 부동산 정책 재검토 하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 소득세 한시적 비과세 카드 를 다시 꺼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신축 미분양 주택에 대한 5년 간 양도세 면제 및 감면 조치를 지난 12일부터 시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구해 온 지방의 목소리에 비해 미분양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곤 아쉬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공주택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이해할 수 없다. 민간의 미분양사태 해결이 목적이었던 공공주택은 제외되어 마땅하다. 공공주택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면 민간의 미분양사태 해결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심각했다.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즉흥적인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위기에 더 빛난 행남자기의 '상생 경영'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린 직원들을 위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희망을 나누는 기업이 있다.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행남식품 맛김 공장이 화제의 기업이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1년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행남자기 본 차이나 4공장이 폐쇄되자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 15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오랜 세월 회사와 함께 동고동락 해온 직원들을 '내칠 수 없었던' 김용주 행남자기 회장은 묘안을 찾느라 밤잠을 설쳤다. 이들 중 경기도 여주 공장으로 옮겨 다시 취업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었지만 생활근거지인 목포를 떠나지 않으려는 60여명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김 회장은 절친한 남승우 풀무원 대표에게 "직인 60여 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자 남 대표는 맛김공장을 제안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풀무원에 납품한다는 조건을 받은 김 회장은 지난

2003년 15억 원을 투자해 행남식품을 세운 후 이들을 고용했다. 김 회장의 배려에 신이 난 직원들은 회사변장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행남자기 노사의 아름다운 동행은 실제 대단히 만연된 요즘 세태에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기업인으로서 어떻게 된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었다"는 김 회장의 말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지난날 고용률이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인 57.3%를 기록하는 등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일자리 풀이'에 나선 탓이다. 하지만, 감원만이 능사는 아니다. 당장 어렵다고 너도 나도 대량해고를 나서면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 불황이 장기화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행남자기의 상생경영이 빛을 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無等鼓

'지금 우리는 울고 있습니다/최루탄이 터지는 거리에서 아이를 안고 달려가며/하느님 손수건으로 아이의 눈과 입을 가리고(중략)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가면 괜찮다/아가, 너희는 최루탄 없는 세상에서 살아라 달려와/눈이 매서워가 아니라 북받쳐 오르는 분노 때문에/우리는 울고 있습니다'. (도종환 '아가, 너희는 최루탄 없는 세상에서 살아라') 공안통치가 관치된 80년대, 그 시절 젊은이들에게는 최루탄 냄새가 났다. 시민들 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남로나 대학가 시위현장을 지날 때면 따가운 눈을 비비고 콧물을 흘리며 재채기와 구토를 쏟아내야 했다. 화학 무기인 최루탄은 종류도 다양했다. '쉬쉬쉬' 소리를 내며 사방팔방을 휘젓고 다니는 다연발 '지랄탄'을 필두로 SY44(일명 직격탄), KM25(일명 사과탄)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로 인한 희생도 컸다. 6·10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 4·19의 상징인 김주열 열사 모두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90년대 들어서도 이 '야만의 무기'는 상당기간 시위 현장에서 위세를 떨쳤다. '무서무탄(無死無彈)이나, 무탄무석(無彈無石)이나' 논란 속에 그 수명을 연장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1998년 9월 만도기계 파업 현장에서 공권력이 투입됐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됐다. 경찰도 1999년 '무(無) 최루탄'을 전명한 이후 그 원칙을 지켜왔다. 이는 평화적 시위 분위기 확산에 큰 몫을 했다. '용산참사' 수사에서 면죄부를 받은 경찰이 10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최루탄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소통을 외면한 채 폭력적 도구로 시위를 막는 것은 더 큰 저항을 부를 뿐이다. 최루탄을 앞세우고도 시위가 그치지 않으면 그랜 어떻게 할 것인가. '독재정권의 유물'을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최루탄의 추억



노인 취업 문제 정부의 장기 대책 필요

우리 직업소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60~70대 노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한 60대 할머니는 내가 전화로 일거리를 알아보는데 동안에도 옆에서 "잘할 수 있어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노인분들은 행여 소개소로 급한 구인전화가 걸려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아침부터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단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계신다. <▲송희권·광주시 북구 대령동

가 상대적으로 좋은 공장이나 건설현장으로 다 빠져나가는 데 솔직한 노인분들이 가시는 곳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무대접을 받는 일자리뿐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60~70대 노인분들의 대부분은 끝나지 않은 자식 뒷바라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척박한 일터에서 비정규직으로 힘겹게 일하고 있으니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과 관심이 있어야겠다. <▲송희권·광주시 북구 대령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